

시성경의 바램  
세상을 살리는 여의성



YWCA는 모든사람이  
이룰수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특별한 계절에

詩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이 특별한 계절 하늘의 별들을  
찾아 보셨는지요

동방박사가 가던 길 비추어 준 광선  
도시의 매연 우리가 피어놓고선  
이제 별들은 사라져 없는 듯  
우러러 그 길은 찾지 않는 것인지요

이제 천체의 신비로움은 허블망원경의 몫  
별들의 수 헤아릴 수 없이 빛나고  
행성들은 또 찬란한 탄생의 기록 적어 가는데  
우리 마음까지는 담지 못하고  
하늘아래 지구의 삶은 왜 이런지요

유난히도 거대한 폭풍과 해일  
여기저기 화산들은 부글거리고  
말구유처럼 소박한 집들도 휩쓸리는데  
아우성 피난길 출산이 허락된 시간 은총의 의미는 무엇이옵니까

이 특별한 계절 저마다 가진 것 내려놓고  
독단과 편견의 목소리 가라앉히면  
영롱한 심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지요  
수시로 화살처럼 쏘이는 하늘의 섬광을.

오늘, 이 특별한 계절 옆 사람 뺨에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사랑한다고  
별빛 닮은 눈으로 말하게 하소서  
큰 집도 작은 집도 마구간입을...



2013.12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원수를 사랑하라

이달의 현장 ①  
YWCA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이달의 현장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토론회

성탄예배  
나누면서 만드는 평화



비가 오나 눈보라가 몰아치나 나무는 모든 순간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열려 있습니다.  
 나무는 항상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있는 그 자체로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에게 열려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긍정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앞에서 “왜?”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금 이순간의 나’ 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떠나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서 매일의 만나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사진·글 / 최 병 성(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차

- 04 이달의 생각 \_ 원수를 사랑하라 | 한미미
- 05 이달의 현장 ❶ \_ YWCA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 08 이달의 현장 ❷ \_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토론회 | 박동순
- 10 생명 씨앗 \_ 제5차 YWCA 생명포럼
- 12 생명 이야기 \_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이 그 누구인가? | 이윤숙
- 14 평화의 여정 \_ 고통을 치유하고 관계를 세워가다 | 배영자
- 16 감동이 있는 나눔 \_ 필리핀을 향해 쏘아올린 희망의 공  
 | 서울봉천복지관 다문화이해활동가 다울
- 17 YWCA PR기자단 \_ PR기자단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 최장현, 서민지
- 18 돌봄협동조합 \_ 협동조합기본법 1년, 신규 협동조합들의 현황과 과제 | 최영미
- 20 이달의 인물 \_ 여성·아동을 품고 세계로 |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
- 22 오늘의 여성 \_ 성폭력은 여성폭력의 일부, 여성에 대한 차별 없어야 | 명진숙
- 24 기다리 \_ 세계YWCA 사무총장과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 | 조영미
- 26 현장의 소리를 찾아 \_ YWBS 6기 방송을 마치며 | 6기 아나운서
- 28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쉼터 협의회에서 보내온 편지
- 30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변화의 힘 - 연민, 살림, 지혜 | 최만자
- 32 문화가 산책 \_ 불만찬 공연·전시 | 디셈버 외
- 33 성탄예배 \_ 나누면서 만드는 평화 | 손인용
- 34 연합회 소식
- 36 회원YWCA 소식
- 45 2013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 47 CMS 후원, 출판 감사 인사



### 표지이야기

유환석 화백 작(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그림으로 행복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야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누리에 평화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원수를 사랑하라


글 | 한 미 미 (연합회 실행위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3~44)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기까지 한 말씀인가? 지금 이 세상에서 원수는 커녕 내 이웃도 돌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아니 자기 가족도 버리고 하물며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버리는 세상 아닌가? 그런데 내 가까이에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을 한 달 전쯤 만나게 되면서 나에게 거룩한 도전을 던져준 실화가 있다.

지구촌 사랑나눔의 김해성 목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지난 10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직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방황하던 중국동포 김모 씨를 지구촌 사랑나눔 쉼터에서 받았는데 3일째 되던 밤, 그는 쉼터 일층에 위치한 급식소에 불을 질렀다. 갑작스런 방화 때문에 쉼터에 있던 사람들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방화범도 도피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 빌딩 아래로 떨어져 의식불명상태로 대수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김 목사님은 방화범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상자들에게 대한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위안을 받고자 기도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김 목사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화범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생사를 헤매고 있었고 김 목사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도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라는 말과 함께 그 병원을 나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형제들이 연락을 했는데 그의 사망소식과 함께 그동안 밀린 수술비와 장례비까지 천 만

원 가량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도움을 청한 것이다. 목사님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붙잡고 그의 가족들을 돕고자 빚을 지면서까지 장례식을 직접 치러주셨다. 급식소 복구작업비만 2억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도저히 방화범의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순종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수리비뿐만 아니라 방화범의 병원비, 장례비 그리고 그동안 빚졌던 운영비까지 다 갚을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보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족분이 보낸 편지 내용 중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큰 손해를 끼쳤는데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피해를 한 줌도 갚지 못했는데 도리어 우리를 도와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나 자신도 사랑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 강박한 현실에 절박하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아닌가? 2013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며 새삼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할 준비가 됐는가?'를 물어보게 된다. 김해성 목사님의 간증이 식어가는 우리의 영성을 뜨겁게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 여성지도력의 표본을 삼다




왼쪽부터 강경화, 이애란, 이희호 님



왼쪽부터 차경애, 이애란, 이희호, 강경화, 하영구 님

YWCA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가 11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상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젊은지도자상은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이 그리고 특별상은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가 수상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씨티은행의 후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도력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여성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리더십의 모델을 확산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여성인권확립을 위해 힘써 오신 박 에스더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차경애 회장(한국YWCA연합회)의 환영사, 하영구 은행장(한국씨티은행)의 후원자 인사 그리고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의 축하인사가 있었다. 차경애 회장은 수상자 세 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 사회의 정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분으로 이 땅의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여성지도력의 모범으로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하영구 은행장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들의 지도력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인상 깊게 여기며, 여성지도력을 키우

고 발굴하는 한국YWC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했다. 아울러 한국씨티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이어 이연숙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사회 변혁을 위해 애써 온 수상자들에게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10년간의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중 젊은지도자상 여덟 명의 이야기를 '세상을 키우는 젊은 여성리더의 키워드' 『플랫 b』로 엮었다. 이 책은 세상의 통념과 개인적 장애를 딛고 성공을 했지만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젊은 여성 리더의 삶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여성지도자상(像)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대상 이희호



이희호님은 여성인권신장운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소용돌이 속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빈곤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한국 여성·사회운동계의 상징이자 기둥이다. 미국 램버스 대학과 스칼렛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 후, 한국YWCA연합회에서 총무직(1959~1963)을 맡아 근로여성들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인식시켰다. 또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결혼한 여성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 축첩 관련 계몽강연과 시위를 전개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부군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 통일을 향한 걸음에 헌신하였다. 구순이 넘은 지금도 장애우들과 독거 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북한어린이들에게 줄 손뜨개 모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수상 소감

부족한 저에게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에서 귀한 상을 주신 데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YWCA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YWCA가 1922년 4월에 출발했는데 저는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YWCA와 동갑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한국YWCA연합회 총무로 제안을 받았습니니다. 제가 일생동안 생각한 것은 아직도 후진 상태에 있는 여성을 지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YWCA연합회 총무로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승낙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무 승인을 받기 위해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사이셨던 분은 지금 이곳에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은 하나님 품에서 쉬고 계시며 YWCA 발전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YWCA는 한국 여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YWCA에서 한 일은 '축첩자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전국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모두 합해서 축첩자 반대 운동을 하며 피켓을 들고 가두행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YWCA는 어느 여성단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일 먼저 여성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한국YWCA연합회가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59년에 박에스터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각 나라 YWCA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훌륭하게 일하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YWCA는 발 빠르게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생활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YWCA에서 일한 것을 무한히 기쁘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YWCA가 앞으로 더욱더 여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젊은지도자상 이애란



이애란님은 탈북 여성 1호 박사로서 (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남북한 통일 밥상에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음식을 통한 남북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직업훈련과 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탈북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 수상 소감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상은 세계 최악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문화적·경제적 차이로 힘들어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며 용기와 희망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은 비참하며 인권이란 말조차 떠올릴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민은 80퍼센트 이상이 여성인데 이들은 북한과 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 불법 영업에 동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포들의 강제복송을 중지시키고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한 일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황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 열심히 북한여성과 탈북여성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상 강경화

강경화님은 '유엔의 본질은 뉴욕과 제네바가 아니라 현장'이란 말을 늘 강조하며 분쟁 지역, 전쟁지역 등에서 여성·아동 성폭력 등의 인권 유린과 다양한 인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시하는 등 국내 인권문제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수상 소감

한국 발전사의 중심축에 있는 한국YWCA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보편적 가치, 인권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무시되는 현장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현장들을 둘러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과 아동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차별이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지원 없이는 인도적 지원도 인권업무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인의 진정한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여성의 문제가 한결같은 과제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길잡이가 되어 준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후배 여성들이 유엔 국제사회 각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잘 손질된 외양이 아니라 내실에 기본한 자신감과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함의 조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국젊은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받는 특별상의 의미가 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평등 정책의 길잡이가 되다

글 |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지난 11월 8일 경기지역YWCA 협의회가 주최하고 안양YWCA가 주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Y가 경기도 내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보고하며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전략의 일환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통계를 제도화했고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범 실시되었고, 2011년 9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은 사업을 시행한 후 성별영향 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기지역YWCA는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니터링하였다. 총 904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운데 법령 분석이 543건, 계획 11건, 사업 분석이 356건이었다. 이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

은 1개 시의 자료를 제외한 341건의 분석보고서 작성의 질적인 수준과 성평등한 내용으로 정책 제안이 되었는가를 분석했다.

보고서 작성의 질적 수준은 분석 항목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했는가를 살펴본 것인데 작성률이 21%에서 72%까지 기초 지자체마다 편차가 컸다. 대상 사업명과 담당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도 상당히 있어 과제수 채우기에 급급한 면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통계 자료와 그래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해 분석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많이 발굴할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뒤 개선 과제를 도출하게 되어 있는데, 각 회원 YWCA는 개선과제가 성인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마련되었는가를 모니터링 하였다.

예를 들어 A시의 '주민자치대학 운영' 사업의 경우 수료생중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시 여성 수료자를 우대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간시간대에 개설되어 있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 분석이 배제 되어있는 경우인데,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개선 과제 도출시 젊은 여성 및 주부참여를 위해서 야간운영시간대를 주간오전으로 조정하거나 추가 개설을 과제로 도출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개선과제 부문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50으로 배분하여 주어야 한다고 과제를 도출할 경우 이는 여성 취약계층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지역 11개 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는 해당 시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평가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인지 통계 등 필요한 도구들이 갖춰져 있고 부서의 추진 의지가 높을수록 작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각 지역YWCA에서 평가할 때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건수는 341건 중 180건의 사업분석 내용으로 약 52.8% 정도였다. 나머지는 성평등과 무관한 내용을 제안했거나 개선 사항을 아예 공란으로 비워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성평등에 반하는 결론이거나 의문시되는 결론도 상당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5:5 성별로 균등하게 맞추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봉사자나 저소득층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가자 또는 주중에 하는 평생교육강좌 등에 여성의 참가율이 높으니 앞으로 5:5로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대상인원 대비 선정인원의 비율이 훨씬 낮아지는 역차별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성별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개선 방향을 제안한 보고서들도 있었다. 어린이 및 성인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있어 성별로 다른 요구도를 파악해서 남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겠다는 결론도 상당히 많았다. 이는 여성은 정적이고 남성은 동적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업인 실용화교육사업에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업과는 상관없는 요리교육 등을 개설하겠다고 한 보고서도 있었다.

한편, 구체적이고 성실한 분석으로 성평등 개선 과제를 도출한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숲가꾸기 사업 등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가능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여성 채용을 늘리겠다고, 가사 및 양육부담을 함께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순회교육이나 교통편 제공을 하겠다는 제안, 또는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위원회구성의 여성위원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여성장애인 가점부여 등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번에 경기지역 Y가 진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업은 각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각 사업들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선의 담당자들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정책들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정책을 발굴해 성 평등적 정책을 이루어내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상의 생명감수성 - 살아내기

제5차 YWCA 생명포럼이 11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013년 'YWCA 생명운동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3월부터 시작된 YWCA 생명포럼이 제5차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년 동안 생명포럼에서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기독교 여성들의 실천을 위한 많은 생각을 나누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명 감수성을 깨우고, 다지고, 높고, 살아낼 것인가- 여성인 '나'로서 생각을 나누었다. 이번 5차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감수성을 파괴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그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과 형태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였다. 최만자 위원(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의 주제 강연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기독교여성들의 실천'을 요약하여 싣는다. (정리: 편집실)

## 근대적 시간개념과 공간개념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고 그러한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 근대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이해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을 한다. 근대적 시·공간개념은 물질주의, 경쟁논리, 획일화, 통제화하는 삶의 방식에 지배당하게 했다.

전통적 시간개념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서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 쉰다. 그런데 근대적 시간 개념에서는 이러한 시간 이해와 행동을 게으르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근대적 시간개념은 계속 무언가 일을 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내는 것은 절박함이 결여된 큰 낭비이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의 행동과 말, 사고를 제약하고 그 흐름을 적당한 단위로 절단하여 채워하는 '시간 기계'이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 분업화의 발달, 속도의 가속화 등의 생산양식 변화는 곧 시간의 효율성, 능률적 시간 활용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게 하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높이 평가되어 노동 자체가 아닌 '노동 시간이 가치'

로 정의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최대화시키고 양산하는 곳이 공장이며, 공장의 규칙에는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 기계'가 사람들의 활동만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까지 침투하여 특정하게 코드화된 행동 양상, 습관 양상으로 신체에 새겨져 일종의 생체권력(bio-power)으로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 더 선호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주위의 모든 것에 대응하고 신속히 동작하는 사람, 예리한 시선, 생동감 넘치는 기민성 같은 것이 인정받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능률적, 효율적 행동과 습관 양상들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근원이 되었고 그 배후에 바로 근대적 시간 가치가 있다.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공간에 따라 우리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학교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공장이나 집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처럼 근대의 공간은 우리의 말과 행동, 사고를 제한하고 특정한 형태로 반복하게 하는 '공간 기계'이다. 근대적 공간 이해의 특성은 공장, 학교, 집과 같은 공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는데 공장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박수근 - 나무와 여인

노동하게 함으로써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집단의 획일화, 통제화 그리고 같은 행동의 양식화를 갖게 하였다. 근대적 학교 출현은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의 등급을 매기게 되었다. 근대에서 집은 사적인 폐쇄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시간, 공간 기계가 성립된 것은 사람들의 활동과 행위를 획일화하고 양식화시켜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규율과 체계와 연관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된 생활양식들이 일반화되면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시간, 공간 기계에 결부되어 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 근대성의 한 부분이요, 근대성의 삶의 형태에 묶여 있는 한 부속품이 될 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삶은 근대적 가치의 시간과 공간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와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하루 시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지고 있는 것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며, 이 근대적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프랑스 작가 피에르 쌍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그의 책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한가로이

걸기, 듣기, 고급스러운 권태에 빠지기, 꿈꾸기, 기다리기, 시골고향 가기, 글쓰기, 포도주 한잔 마시는 지혜 등의 글을 쓰고 있다. 저자는 느림의 영역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느림이 삶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삶의 시간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無)라든가 영원에 가까운 허무 속으로 숨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시간에 쫓기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만의 리듬에 맞추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팔자가 내게 운명지어 준 리듬에 맞추어 조용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내가 지켜 나갈 수 있기 위하여"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한가한 감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때 여유를 사랑하고 느림을 찬미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이 더 필요하고, 이 기다림의 철학에서 일 자리를 나누는 고용제나 선택적 삶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차 생명포럼을 마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보며 우리 삶의 방식 바꾸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 나갈지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YWCA 생명포럼 돌아보기

### • 제1차 생명포럼- 일상의 생명감수성, 깨우기 (3월 28일)

각자의 생명감수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통해 생명의 강인함과 연합함을 동시에 인식하며,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기는 장이었다.

### • 제2차 생명포럼-일상의 생명감수성, 다지기 (5월 30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가치를 위협하는 우리 삶의 위험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과 다짐들을 나누는 장이었다.

### • 제3차 생명포럼-일상의 생명감수성, 높기 (7월 11일)

생명감수성과 생명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 안에 새겨진 '놀이하라는 본능'으로서 고집어내어 기쁨을 표현하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을 고민하며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 • 제4차 생명포럼-일상의 생명감수성, 나-여성 (9월 26일)

여성들은 생명을 낳고 기르며 돌보는 존재로서 언제나 자연과 동일시되어왔다. 지난 포럼을 통해 깨우고 다지고 키워온 내면의 생명감수성의 힘을 여성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보고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이 그 누구인가?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관리받는 여자, 관리받는 남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유행하는 말이 있다 “너 관리받고 있니?”. 매끈한 피부, 날씬한 몸매, 예쁘고 튀는 얼굴을 갖기 위해 외모를 고치고, 가꾸고 유지하기 위한 전신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 정도의 관리를 받아야’ 나는 ‘이런 사람’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체성의 표현이 된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는 물론이요 피부과 병원이나 뷰티 살롱, 전신마사지숍, 네일숍은 불경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성업 중이다. 몇 년 전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어느 정치인이 연회비 1억 원을 호가하는 피부과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고치고 가꾸고 돌보는 일에 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일이 명품을 사서 ‘구별짓기’의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소비사회의 중요한 패턴이 되고 있다.

원래 ‘관리받는다’는 말은 누군가의 지식과 통제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요즘엔 ‘어떤 의도와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동원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이런 ‘관리받는’ 상식적이고 세련된 대중의 이미지는 단순히 외모가꾸기 열풍으로만 끝나지 않고 ‘몸’에 대한 총체적 관리로 더 확대된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캠페인 공익광고 ‘관리받는 남과 여’ 편에는 ‘건강’ 관리에 대한 담론이 단편적으로 잘 드러나는데, 이 광고는 “나, 관리받는 여자! 나보다 철저히 나를 관리해주는... 그들은 바로 국가

건강검진!”이란 말로 시작해서 “나 관리받는 남자야~ 으흐흐”로 끝난다. 이 캠페인 광고는 ‘관리받는다’는 대중적 유행을 모티브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시민의 상식이고 권리임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을 둘러싼 담론들, 몸이 개조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 속에 ‘건강’ 또한 전적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어필되는 것을 그저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가 저항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 수많은 전문적 기술이 동원되어 관리되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내맡긴 대로 과연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걸일까? 우리 몸이 살아가는 환경은 과연 안전하고 행복한 것일까?

## 나는 내 몸의 주인인가?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받고 치료받는 기술, 즉 서구의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영유아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저하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의학을 무기력하게 하는 수많은 난치성 질환들, 늘어나는 암, 신경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이반 일리치가 『병원이 병을 만든다』에서 밝혔듯이 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병이 발생하는 ‘의원성(醫原性)’ 질환 등은 질병에 대한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평균 수명 연장 등도 사실의 학기술 진보의 산물이기보다는 위생적 환경이 정비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대의 의료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서구의 이원론에 따라 육체와 정신은 분리된 것으로 보고 육체의 질병을 제거

해야 할 국소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한 질병 치료의 내재적 힘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질병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서 기계적으로 파악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건강을 살피고 지키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고도의 의학기술이 펼쳐지고 경연되는 대상이 되는 몸, 즉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의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각해진다. 몸에 이상이 오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지만, 정작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과 질병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마치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듯 몸을 내맡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의사들로부터 질병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열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정작 우리들은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둘러싸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속의 위험요인들, 그리고 우리 몸과 분리될 수 없는 정신과 몸의 상관관계, 우리의 몸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깊게 성찰하지 못한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웰빙 열풍이 불고 피곤한 사회에서 위로받기를 꿈꾸는 ‘힐링’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전문가의 관리’를 받기를 요구하는 소비주의이다. 웰빙을 위협하는 현실이나, 피곤과 스트레스로 우리를 아프고 지치게 하는 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성찰하기보다는 전문적 기술에 의해 어떤 상태나 결과를 빨리 획득하고 하고자 하는 성급한 욕망이라는 것이다.

## 관리받기보다 스스로 보살피기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1998년에 WHO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이다.’ 라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는 현대의학 기술의 한계와 자본주의 사회의 전지구적 환경파괴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의 증가, 몸에 대한 지배와

간섭이 증대되는 소비사회의 사회적 환경 등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둘러싼 상황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받는 여자, 관리받는 남자는 과연 건강한가? 관리받는다는 것이 곧바로 건강을 담보하는 길일까? ‘관리받는’ 몸이 의료와 미용 산업의 트렌드이자 슬로건이 될 때 그것이 곧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며 수단이라 생각하는 태도들을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한다.

1970년대 페미니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의 몸을 열등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여성의 몸을 부정하거나 남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왔던 가부장제 사회에 저항하면서, 여성의 몸은 대상화하는 병원중심의 의료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몸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혜, 자율성을 알리고 존중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대표적 조직이었던 ‘보스턴 여성건강서 공동체(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의 대표적 구호는 “Know Your Body!”, “Our Bodies, Our Selves”이다.

자본주의 소비사회,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주체이기 보다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속에는 우리가 질병과 싸울 힘과 지혜가 함께 깃들여 있다. 우리 몸이 주는 메시지와 우리 몸이 내보내는 신호를 듣고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에 성찰하고, 수동적으로 의료기술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의 도움을 요구할 주체적 능력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이 자기가 가진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생기를 한껏 뽐낼 수 있는 일은 먼저 내 스스로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 몸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보살피고 돌보는 일, 그리고 그러기 위한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는 일이 수많은 몸담론과 건강담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 고통을 치유하고 관계를 세워가다

글 | 배영자 (대구YWCA증경회장, 연합회 평화나눔팀 위원)

## 초은이 이야기

2009년 1월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결혼이라는 큰 꿈과 사랑을 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정든 고향 캄보디아를 떠나 낯설고 물 설은 곳으로 와서 스무 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아기를 선물로 받는 축복까지 받았으나, 남편의 잦은 구타와 술, 담배로 인하여 힘들게 나날을 보내던 중, 술자리에서 폭음을 하는 남편에게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는 초은이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남편이 집으로 오면서 계속 발로 차고 마구 때렸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주 있는 일이라 예사로 여기고 오지 않았다. 계속 구타를 하며 발로 차는 남편에게 겁이 난 초은이는 임신한 아기에게 해가 될까도 생각하여 영겁결에 칼을 들었으나 더욱 화를 내며 달려드는 남편에게 자신도 모르게 칼을 내밀었는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3일 후에 숨을 거두었다.

## 캄보디아에서 만난 초은이

대구YWCA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평화의 발자취' 을 기획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사와 실무진 13명이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초은이를 만나고 왔다. 2010년 본국으로 추방된 이후의 반가운 만남에 밤잠도 잊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모든 아픈 기억들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여겼는데 아직도 몸서리치는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종종 무서웠던 옛날 그 장면이 떠올라 두려워 떨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늦은 밤까지 울며 함께 밤을 보

내었다. 그동안 신앙도 많이 성숙하였고 한국말도 많이 늘어서 선교사들의 통역을 돕기도 하였다. 감사하게도 초은이가 다니는 교회 담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오랜 친분이 있는 선교사이어서, 앞으로 신앙 생활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마음놓고 떠나올 수 있었다.

## 폭력을 딛고 피어난 꽃

2009년 남편 살해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더듬거리며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두 손을 싹싹 부비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녀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이후 대구YWCA의 적극적 참여호소로 52개 한국Y가 전국적으로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계속되는 재판의 자리에 연합회와 대구Y가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고, 나는 매주 그녀를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였다. 임신 기간 중이라 우유를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며 배불리 먹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다. 초은이는 총명하고 지체로워서 말씀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면서 죄책감을 가졌지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됨으로 얼굴도 밝아졌다. 믿음도 차차 깊어지면서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때로는 잔잔한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상담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에 교도소 생활 중에 딸 유나를 낳았고, 딸은 캄보디아 어머니에게 보내어졌다. 4년의 형을



대구Y 이사 · 실무진 캄보디아 방문



프사차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대구Y 방문단

받고 청주교도소로 이감하게 되어, 청주Y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얼굴을 익히고 계속 돌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 후 2010년 8.15 특사로 사면 받아 일주일 만에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초은이의 미래를 위해 한국Y의 조직적 후원과 더불어 개인 후원이 이어지며, 사랑의 기도와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대구Y 이사회는 초은이의 한국에서의 아픈 기억과 마음의 깊은 상처의 치유, 그리고 다문화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대학 4년간 매월 미화 200달러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평화


교도소 선교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재소자들을 만나게 된다. 출소 후 사회 복귀는 필연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수반됨과 동시에, 전과자라는 오명 속에서 이중적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경쟁의 바닥에 뛰어드는 이들에게 마주치는 현실은 매우 비정하고 적대적이다. 이를 악물고 참아도 몰려오는 서글픔과 괴로움은 밀물처럼 몰려온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그들의 신음 소리에서 우리를 향해 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도를 만나서 상처입은 자에게는 간호가 필요하다. 그

간호에 따른 부비가 필요하며, 처소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받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쓸모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로 인해 뭔가 유용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 중의 하나이다.

평화는 인간 관계를 말하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간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 태도와 삶의 방법이 변한다. 평화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YWCA 평화(통일)운동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화해와 일치 운동이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생명 사랑운동이고, 기독 여성성에 입각하여 나눔과 돌봄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운동이다. 곧 하나님 나라운동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는 말씀에 따라, 평화운동은 하나님의 딸들이 Y 회원들의 마땅한 책임이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에 응답해야 한다.

평화의 기쁨에 춤을 출 그 시간까지 이 부르심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Y공동체, Y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초은이가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건강한 여성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다. 

# 필리핀을 향해 쏘아올린 희망의 공



모금을 위한 '다올' 바자회

서울봉천복지관 다문화이해활동가 조직 '다올'은 필리핀 태풍 피해 모금액 1,258,360원을 연합회 성탄예배에서 전달했다. 국제결혼이 성황을 이루며 결혼이주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2007년, 봉천복지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들이 고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다문화이해 활동가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이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벌써 4년이 지났고, 지금은 필리핀,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의 이주여성활동가들과 선주민활동가 20여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는 서울봉천복지관 김예리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이번 필리핀 긴급 구호 모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다올'이란 이름의 뜻은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온다'는 순우리말로, 우리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올'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참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필리핀 긴급구호 모금을 위한 바자회도 그중의 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활동가 네리사 엔젤레스 씨의 편지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고국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네리사 씨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다올'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자는데 마음을 모았어요. 필리핀구호TF팀을 결성하고, 바자회를 진행하기로

했죠. 단기간에 준비한 바자회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를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1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마치 내 일처럼 '필리핀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던 활동가선생님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피부와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됨'의 경험이었습니다.

**Q 이 모임에서 해온 나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올'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나아가 한국어가 부족한 이민여성활동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 활동가도 있고, 반대로 중국활동가 소모임에서는 한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거나, 갓 입국한 이민여성을 위해 통번역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민여성활동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다올'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약해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강해지듯이 우리 사회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며 끌어안아 품어주는 가슴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R기자단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제주도 기행

글 | 최장현 (YWCA PR기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획했던 제1기 '길 위의 평화학교' (이하 길평)가 마무리되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남한, 북한 출신 청년들이, 청주에서는 남한, 북한 출신 여성들이 남북간 문화공유 및 세미나, 여행을 통한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다. 5개월 동안 60여 명의 청년들과 여성들은 14번의 만남을 가졌다. '친해지는 길' 모임으로 서로의 얼굴과 생각들, 출신 지역들을 익혔고,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 모임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우리 지역에서 평화를 찾는 길'에서는 비폭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남북간의 평화통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확인한다. '평등의식&평화감수성 UP'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에서는 두 명씩 짝 지어 협동하면서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 기행을 다녀왔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성격유형검사, 제주4·3평화공원 등을 돌아보면서 서로에 대한 정을 더욱 돈독히 했다. PR기자단은 이런 모임의 현장마다 빠지지 않고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하고 사진과 영상을 기록했다. 이렇게 제1기 '길평'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었다. 기획자들, 참여자들, 강사들, 취재자들, 후원자들이 맡은 일을 달랐지만 끝까지 함께 했다.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갈등하는 곳에서는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상대의 가치관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었고, 아픔에 너무 무관심했었고, 호혜를 너무 오해했었다는 성찰들이다. 만남의 지속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넓히게 된다. 그리고 그 넓고 커진 마음으로 상대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길평'은 받아들임이었고 그 소기의 목적은 성과적이었다고 본다.

# 시청자들과 함께한 '길 위의 평화학교'

글 | 서민지 (YWCA PR기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4학년)

PR기자단은 YWBS 방송국과 협력하여 화요일 방송에 두 차례 활동소개를 했다. 지난 8월 부산Y의 양성평등에 관한 취재를 바탕으로 육아에서부터 커리어우먼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현대판 현모양처 슈퍼맘을 원하는 '슈퍼맘다이어리' 쇼 프로그램과 마냥 북한여성엔 순종적일 것만 같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가족농구선수단'이라는 북한영화를 함께 보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배웠다. 이에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시청자들의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해 '평화'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26일 마지막 방송에서는 서울Y 제주도 기행 취재를 바탕으로 방송했다. '공정여행'이라는 키워드로 평화를 몸소 실천하는 착한여행에 대해 전했다. YWBS 시청자들은 앞으로도 PR기자단의 취재를 기대한다며 지지와 관심을 보내왔다. '평화(平和)'는 '높낮이가 없이 한마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라 한다. 이제 '길평' 프로그램도 취재도 방송도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그동안 '길평' 프로그램이 마련한 풍성한 먹거리를 한마당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했다. 기자로서 방송을 통해 좀 더 넓어진 밥상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수저를 놓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 협동조합기본법 1년, 신규 협동조합들의 현황과 과제

##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글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 글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주최 '협동조합기본법 1주년 기념 이야기마당'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일반협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는 설립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법상에서는 설립기준이 가장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설립동의인 200인 이상,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본법에서는 5인 이상, 금융보험업 제외라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출자금 규모, 사업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리건수 기준으로 총 2,841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월평균 258개, 일평균 8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뜻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은 91개이며, 그밖에 자전거연합회, 음식사업연합회, 서점연합회, 안경사업연합회 등 협동조합연합회가 10개 인가받았다. 특히 서울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0월 말 현재 830개로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신규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 말, 서울시는 7월 말 신고수리, 인가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현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각각의 조사에서 유효응답은 50% 안팎이다.

### 신규 협동조합의 현황과 고충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은 조합원의 수입 증대와 복지 증진(45.2%),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문제 해결(27.8%), 조합원 일자리 창출(10.9%)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는 7.8%로서 외부에서 우려하는 '의존형 협동조합'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에 만족을 표했는데 그 이유로 '조합원 수익 및 복지 증진(45.5%)' '일자리 창출(18.7%)'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13.4%)'를 들고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기재부 조사에서 45.6%, 서울시 조사에서 20.9%(응답자가 절반 가량이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임)의 조합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로는 사업운영자금 부족과 수익모델(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기대한 정부지원 부재'라고 응답한 곳들도 많은데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 및 정부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 등 준비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역시 사전 준비 미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에는 많은 조합들이 설립 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곧 기재부

조사의 41.4%, 서울시 조사의 26.1%가 설립 전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개 임원 중심으로, 조합원 대부분이 받은 경우는 겨우 1/4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 조사에서 82.6%의 조합들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설립 전 교육을 받은 조합들 역시 실제 운영에 부딪쳐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밖에 조합들은 설립과정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립과정의 고충 : 복잡한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법률회계재무 등 전문적 지식 부족
- 사업 시작까지의 고충 : 사업모델 · 계획 · 자금 미비, 복잡한 등기 · 등록절차
- 사업 운영시의 고충과 요구 :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판로 개척 지원, 세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컨설팅 지원


### 정부와 민간의 정책 방향

간단하지만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 희망자들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미흡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설립실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반드시 조합원 전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모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법무-세무 등 전문가 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업등록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단계에 맞는 상시적 경영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신규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겪는 어려움은 주로 수익모델이 애매하거나 수익모델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낼 역량이나 경험이 없거나 회계장부 정리 등 사업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교육-경영멘토링-심화교육-자기주도 학습모임 등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가 동시

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적 지원을 구조화시켜야 한다. 이는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보완하는 형태의 '현장 중심의 경영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사업모델 검증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회계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작지만 실용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 활성화의 핵심은 '판로 확대'이다. 그리고 판로 확대를 위한 방법은 크게 '공공조달'과 '협동조합간 상호거래'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간 상호거래 가능한 품목 및 거래방식을 연구 중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일반 협동조합을 하루빨리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거기에 따르는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조달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성이 강한 일반 협동조합을 육성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상호거래 등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협동조합이 가진 자본과 기술과 영업력의 취약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이 때 신규협동조합뿐 아니라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기존 협동조합들을 아우르는 연대와 네트워크가 핵심 발전전략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하루빨리 기본법에, 신규 협동조합의 연합회뿐 아니라 이종 협동조합간 '협의회' 설립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협의회'를 통해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신협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기존 협동조합들과 신규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상호거래 등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실험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동체의 싹이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여성 · 아동을 품고 세계로



나랏자이 굼보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이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굼보즈반다 사무총장은 10월 28일 여성사전대회에서 '여성폭력추방'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11월 4일 열린 여성폭력추방 마당워크숍에서 VAW운동을 중심으로 세계YWCA 활동에 관한 토론 발표를 했다. 마당워크숍 사회를 맡았던 원영희 이사(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가 11월 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굼보즈반다 사무총장을 만나 대담을 했다.

**짧은 여정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제10차 부산 총회와 한국YWCA를 방문하고 새로이 지니게 된 비전이 있으십니까?**

방한 중에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개최되어 이회호 여사를 비롯한 한국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뻐다. 만나는 여성운동가들마다 각각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어 뻘뻘한 일정이 힘든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특별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을 주제로 WCC 참가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세계2차대전 중 희생당한 성노예여성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생존자 한분이 WCC 총회에서 우리 세계YWCA 부스를 방문해 만난 일은 충격이었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은 세계YWCA가 주력해온 분야인데, 이런 맥락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을 올바르게 보상하지 않고 그 실체까지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UN과 NGO를 포함해 세계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정의롭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낼 때 잘못된 사회와 권력을 바꿀 수 있다. 이에 교회는 여성폭력추방을 위해 기도뿐 아니라 상담치료, 법률상담, 쉼터 등 적극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제공하는 일

에 더 집중해야 한다.

**VAW를 주제로 WCC와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호소하는 운동도 하고 이번 방한 중에도 이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는데 세계YWCA와 한국YWCA가 동역하기 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시의 성노예'를 일본군 '위안부'로 약화해 부르는 것도 권리 주장과 보상의 문제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민족과 여성 전시관'을 방문하고 그 충격적인 사실에 많이 놀랐다. 한국YWCA가 이 서명 운동에 함께 하고 또 양국 간 평화와 치유를 위해 한·일 YWCA와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WCC 총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의 존재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와 교회에 담대히 알려야 한다. 세계YWCA와 한국YWCA는 더욱 구체적인 VAW 주창운동을 벌여서 탈북민들의 상황을 보살펴야 하며 UNSC1325 실천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이들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적(性的)인 폭력뿐 아니라 군사력 확장 같은 사회적 갈등도 여성폭력을 초래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쟁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다. 이들 중 여성은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전쟁 중 여성폭력 실태는 여전히 지금도 심준이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 21년간 인권변호사로 일해 오셨는데 VAW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인 나는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된 어머니께서 11명의 남매를 키우셨다. 막내인 나만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고, 언니 오빠들은 모두 내 학비를 벌러 일을 해야 했다. 덕분에 대학에 가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변호사협회에서 일하면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잔혹한 현실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들의 고통에 침묵할 수 없어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유엔 여성개발기금(UNIFEM) 아프리카 지역상담관, 유엔아동기금(UNICEF) 인권담당관, 영국 세이브더칠드런 이사등을 거쳐 지난 2007년 11월 세계YWCA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몇 세기 동안 지속된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그 순간부터 대중에게 외치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상황에서 침묵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여성들에겐 여성폭력에 반대한다는 뜻을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런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세계YWCA는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한 여성폭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경제적 능력 향상 등의 방법으로 폭력으로 신음하는 여성의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폭력과 성적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성 불평등, 여성과 남성 간 권력의 불균형, 여성의 경제력 부족이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성폭력은 계속 증가한다. 여성폭력에 관습이나 문화적 이유로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아니다.



대담 중인 원영희 이사, 굼보즈반다 사무총장

**11월 7일 한국YWCA 젊은 여성들과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느끼셨던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는 내내 전율했다. 뚜렷한 주관과 뛰어난 감성의 한국Y 젊은이들을 만난 시간이 이번 여정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뛰어났고 어떤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발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2012 YWCA ITT'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세계적인 지도력을 만나고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 기회를 주는 일은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불의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여성폭력반대의 뜻을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말이다. 성노예이지 위안부가 아니라는 용어의 차이로부터, 저 멀리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 성폭력 추방을 위해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또한 탈핵의 가치와 미래 환경 지킴이의 역할 등을 젊은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미래는 곧 저들,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VAW 운동 신념에 대한 우리 YWCA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고,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는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때를 위해 기도하며 일어서야겠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과 글 정리: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 성폭력은 여성폭력의 일부, 여성에 대한 차별 없애야

글 | 명진숙 (연합회 운동국 국장)



매년 11월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기간’이다. 11월 25일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가 살해당한 것을 계기로 정해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고, 12월 10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규정한 인권선언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들은 1991년 모임을 갖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여성폭력추방기간(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Against Women)으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한국YWCA가 여성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돌아보게 된다.

한국YWCA는 전국 26개 시·도 40여 곳에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와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적, 의료적, 상담적 지원을 통한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가해자 재범방지교육(보호관찰소 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절감한다. 먼저 지금과 같이 처벌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인 법과 제도 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 수 없다. 즉 성폭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불평등한 남녀 사회적 지위


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각심 교육이 성폭력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물론 교육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지역검찰에서 만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에는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을 조심할 것, 주변에서 사람이 접근할 때 조심할 것, 음식과 선물을 주겠다며 집에 가자고 할 때 따라가서는 안 될 것’ 등의 내용인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 같은 교육이 미래세대인 아동과 우리사회에 적절한 내용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25일,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많은 여성단체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만 해도 성폭력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 강화, 신상 공개 제도 강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생활형 안전정책으로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증가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고, ‘안전’을 키워드로 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가 하는 노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폭력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 또는 성적 행위로서 가벼운 터치나 애무, 추행,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하는 신체적 접근을 포함하여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음담패설, 음란 전화 등과 같은 언어적 행위, 그리고 응시와 몸동작, 음란물의 전시, 성기 노출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 등을 의미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게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피해자 유발론적 논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늦게 혼자 돌아다녔다든지, 남성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옷을 입었다든지, 저항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든지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인 아동과 여성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결국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책을 찾으려 만든다. 언젠가부터 호신술을 배우고 방범용 호루라기와 같은 호신용 기구를 구입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안전귀가를 돕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해결책은 큰 효과가 없다.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우리사회에 팽배한 성차별 의식과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본능이며 충동이라는 성적 이중 규범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가해자들(주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수위에서 결정될 때가 많다. 2013년 대법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이 3.8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 역시 3.36년에 불과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또한 가해자 처벌과 성폭력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이야기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찬 상황에서도 다시 성폭력을 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그리고 아동이 언제라도 잠재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다. 직접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 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아동들이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 그 속에 사회적 약자들은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평등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6개국 중 116위로 극빈국에 해당하는 방글라데시보다 낮고, 파키스탄, 네팔, 이란과 같은 수준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영국 BBC기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에서 탄생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묘사된 바 있다. 각종 시험에서 여성들의 두드러진 성과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른바 ‘알파걸의 시대’, ‘여성상위시대’가 되었다며 성평등을 향한 활동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에 여전히 불편하고 두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언급한 것처럼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로 정치적 자유,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여성폭력추방기간’을 정하고 여성폭력추방에 전 세계가 앞장서고자 촉구한 것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억압을 없애는 것이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성폭력은 여성폭력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여성폭력추방기간’은 12월 1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YWCA가 세계YWCA와 함께 여성폭력반대운동에 앞장서는 이유이다. 

# 여성이어, 협력하며 함께 걷자

글 | 조영미 (연합회 운영국 부장)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나랏자이 총장



참가자들과 함께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과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11월 7일 서울Y마루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으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세계YWCA의 실무책임자로서의 그녀의 삶을 만나고 한국Y의 젊은 여성들의 활동을 나누며 YWCA 활동가로서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원형희 연합회 집행위원의 사회로 세계YWCA 사무총장의 삶과 운동이야기를 듣는 'Her Story', 한국YWCA 젊은 여성들의 운동이야기인 'Our Story', 그리고 YWCA에서의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Sharing Our Vi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Her Story'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닐 수 없었던 꿈같은 학교를 언니, 오빠들의 배려로 다니면서 여성과 아동 교육의 권리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언젠가는 모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꿈과 더불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갖게 된 인권변호사의 꿈, 그리고 결혼, 육아,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UN에서의 경험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했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집대성하여 120여개 국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YWCA 운동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이 길에 늘 자신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YWCA에서 회원으로 기차단으로 실무자로서 평화, 탈핵,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의 활동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한 여성의 삶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여성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젊은 여성들과의 대화모임 참가자는 자매애를 가지고 여성활동가로서 꿈을 잃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My Story is your story, your story is my story and our story."

이정민(서울Y, 이화여대 국제학부 1학년)

참가 후기

세계YWCA 사무총장과 대화모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Our Story' 파트에서 '탈핵'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난 8월 한·일Y협의회에서 청년들과 나누었던 탈핵의 긴급성을 나누었다. 굼본즈반다 사무총장님의 밝은 눈빛과 활짝 웃는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세계YWCA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유엔 난민기구 고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한 권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눈빛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경청하였다. "My story is your story and your story is my story."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공감하고 말로 그것을 나누었다.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서 그 순간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발표 중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바라보는 대화모임의 참가자들을 보면서 밀양시와 후쿠시마 주민들을 향한 마음과 절실함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굼본즈반다 사무총장님을 만나 일상에 영감을 더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박혜리(서울Y 국제협력부 간사)

참가 후기

서울YWCA의 국제협력부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의 YWCA 실무자나 회원,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간혹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Y실무자로서의 삶을 다시 추스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만난 모든 Y 가족들은 인종과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YWCA 사무총장과 만남은 또 한 번의 충전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

## 너와 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짐바브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랏자이 굼본즈반다라는 아프리카 여성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인권변호사와 UN사무관을 거쳐 세계YWCA의 사무총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동을 주기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인 그녀의 말은 감동을 넘어 우리가 Y 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비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Y 활동가에게 필요한 덕목일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할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세계 속의 한국Y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날 각 회원Y에서 모인 자원지도자, 실무자, 회원들은 여성인권, 평화, 탈핵과 관련하여 한국의 YWCA가 하는 활동을 나랏자이 사무총장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서울YWCA가 진행 중인 여성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을 소개하였는데 나랏자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YWCA의 활동들을 유엔여성회의에서 세계 여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52개의 YWCA가 매일 고군분투하며 쌓아온 여성운동이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과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놀랍고 기뻐다. 또한 함께 참여한 Y의 젊은 회원들이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총장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감을 밝히거나 질문을 던지는 모습 속에 우리의 미래가 투영되는 듯 했다. 세계YWCA는 젊은 여성들의 리더십 개발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나랏자이 총장은 젊은이들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Y의 젊은 회원들이 Y와 함께 하며 존중 가운데 성장하여 미래의 Y를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생겨났다. 큰 감동과 의미로 모든 참가자들을 집중시켰던 나랏자이 사무총장과 만남을 통해 YWCA가 국제운동단체임을 새삼 깨달았다. 120개국의 3백만 회원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며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인 여성운동이라는 한 가지 지향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운동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앞으로도 내가, 우리의 회원들이, 한국의 YWCA가 1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제운동단체 YWCA의 일부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YWBS!

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청년성을 키우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한국 YWCA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약 25만 명의 시청자가 다녀갔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6기 아나운서 방송이 막을 내렸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마친 아나운서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 신은준 월요 아나운서



월요일 오후 2시. 뜨거웠던 지난 7월, YWBS 6기 아나운서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후로 내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두 시간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를 지켜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그리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은 항상 설레고 행복했다. 첫 방송날, 새로 산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그렇게 방송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순간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하다. 마이크를 켜고 카메라에 인사를 하고 열심히 준비한대로 그렇게 두 시간을 달렸다.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고,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쏠살처럼 지나갔다. 방송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도,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이야기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시청자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배가 잔뜩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2013년과 함께 6기 아나운서 활동도 끝이 보이고 있다. YWCA 연합회 인터넷 방송국의 아나운서로서 활동해보게 된 것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소통과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배우의 장이 되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내 미래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Y방송이 있었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의 스

물한 살을 뜨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랑해요, YWBS♥

## 정새미 화요 아나운서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열정, 여기는 한국 YWCA 인터넷 방송국 YWBS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부터 약 20주 동안 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말했던 YWBS 오프닝 멘트. 이 멘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걱정했던 첫 방송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방송을 마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 YWBS를 사랑하는 시청자 덕분이었다. 방송은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YWBS 아나운서로 보낸 이 시간은 배우의 연속이었다. 매주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있다는 것, 글과 말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게만큼의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무게보다 무겁지 않게, 그렇지만 가볍지도 않은 진행자가 되는 것이 YWBS 아나운서로서의 목표였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진 요즘, 이 단어들의 의미를 진심으로 배우고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부장님, 정서연 간사님, 6기 아나운서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정혜진 수요 아나운서



처음으로 시작한 '내 방송'인 만큼 지난 6개월은 나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처음 방송을 하던 날 느꼈던 설렘과 흥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두 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내가 준비한 내용들로 방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Y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책임감과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방송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방송횟수가 거듭될수록 방송의 애청자도 생기며, 그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동안 수요 방송을 사랑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6기 아나운서로서의 경험을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더욱 전진하겠다.

## 박별 목요 아나운서



처음 Y방송을 시작하면서는 설렘 반, 걱정 반인 마음이었다. 생방송이라는 세 글자가 나에게서는 참 큰 부담이었고 한편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다. 어떻게 첫 방송을 끝마쳤는지 기억이 안날만큼 정신없이 두 번째 방송까지 마무리 하고, 세 번째 방송부터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Y방송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의 딱 두 시간이 나에게 일주일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 두 시간을 위해 일주일 동안 영화를 보고, 대본을 쓰고 그 시간을 기대하며 행복한 6개월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Y방송을 사랑해주는 분들과의 많은 소통이었다. 부족한 나를 믿고 하루의 두 시간을 투자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나는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고 간다. 마무리하는 이 글을 쓰는 지금

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들과 프로그램들이 떠올라서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 6개월은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신난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느낄 만큼 설레는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 지현정 금요 아나운서



방송을 하며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재정의' 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알게 되었다. 먼저 팬이라는 타인을 새로 알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 내 자신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무겁지만 가볍게 느껴지는 현정 아나'라고 날 재정의 해주신 덕분이었다. 3부 테드톡(TED-talk)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2부 테이트의 신(대신)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며 식욕에 충실한 방송을 했었다. 그래서 진지함이라는 무거움과 소소한 웃음거리라는 가벼움을 둘 다 가진 사람이란 말씀을 해주셨다. 나 또한 23년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Y방송할 때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내 방송의 엔딩 멘트는 '가장 일상과 닮아있는 방송이고 싶습니다' 였다. 매주 방송을 하며 다짐했던 말이다. 첫 번째 목표는 나의 일상, 평소 모습을 방송에 그대로 녹여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일상의 친근한 사람들처럼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것이 목표였다. 사실 직접 만든 대본으로 두 시간 동안 6개월간 방송인턴을 했기에 방송 능력은 자연스레 늘어있었다. 하지만 향상된 방송 능력보다도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어느 순간 내 거울이 되었다는 점이다.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다음 행동을 예상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재정의' 해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했다. 방송을 하며 하이 라이트 영상도, 날 주제로 삼아 지어주시는 시, 직접 그린 스케치 선물도 받았다. 그렇게 반 년동안 평생 남을 만큼의 벽찬 사랑들을 받았다. 그래서 YWCA 아나운서로 첫 시작을 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

## 전국 회원YWCA 회장, 사무총장, 실무자와 회원 여러분들께



###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따스한 12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회원YWCA에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쉼터 협의회' 가 도움을 요청했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목사 강력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과 관련된 사건이 지난 11월 15일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변론종결일에 검사가 20년을 구형했고, 11월 15일 최종 선고에서는 2년 감형된 18년을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기간동안 11번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했다면 항소하지 않겠다'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 보았지만... 역시나 11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매번 재판을 방청했으나 변론종결일이었던 10월 28일 전까지 다섯 번의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9월 27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딸이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인故 김영희 씨(가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변론종결일까지 한 달여 동안故 김영희 씨를 상담했던 상담소와 입소했던 쉼터들의 상담일지, 쉼터에 함께 입소했던 피해여성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 의해 모두 삭제된 줄 알았던故 김영희 씨가 피고인과 싸우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유품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의 아들과故 김영희 씨의 언니가 변론종결일에 증인을 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녹음파일이 변론종결 전에 발견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때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결혼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정폭력의 선상에서 계획적인 살인으로 이해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으나 우발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인故 김영희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7살 쌍둥이가 함께 사건현장인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가중 이유로 들었습니다.(참고로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10~16년, 가중형량이 15년 이상/무기 이상입니다.)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7살 쌍둥이 딸의 양육 문제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이유로 감형이 우려되어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하고, 회원YWCA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름이라 서명이 쉽지 않았던 8월 회원YWCA에서 보내주신 서명은 총 3,021명이었으며, 8월 29일 의견서와 3,021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10대 Y-Teen회원부터 70대 회원까지 참여해주신 서명을 보면서 사건을 지원하는 내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사건을 지원했던 한국 여성의 전화도 YWCA 서명 참여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처음 서명을 집계할 때 서명이 300명도 채 되지 않아 의견서만 제출하고 서명은 제출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곳 한곳 회원YWCA에 전화를 드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때 '여름이라 많이 받을 수 없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팩스로, 우편으로, 메일로 한곳 한곳에서 서명이 도착하면서 '이게 또 YWCA의 힘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보내주셨던 분, 교회에 서명용지를 들고 가서 서명을 받아왔던 분, 회사 전체 직원의 서명을 받아주셨던 분, 교인 전체의 서명을 받아주셨던 목사님...

명수에 상관없이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회원 YWCA 회장, 사무총장, 실무자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소를 해서 이 사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사건의 진행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YWCA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믿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폭력상담소라는 책임감도 있지만 피고인의 특성을 알기에 단독으로 사건을 지원하기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쉼터 협의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피해자故 김영희 씨의 쌍둥이 딸은 외조부모님께서 양육을 하고 계시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심리치료비와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쉼터 입소해서 자립할 때故 김영희 씨에게 도움을 주었던 지역의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쉼터 협의회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아이들이 조부모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故 김영희 씨 진술서 중에서) 라는 바램처럼故 김영희 씨 아이들이 사회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함께 보내주신 회원YWCA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탄의 기쁨이 회원YWCA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3년 12월  
전국YWCA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쉼터 협의회 올림

### <故 김영희 씨 살해 남편 사건 경과 일자>

2012년 11월 19일	피해자故 김영희(가명)씨 이혼소송 접수
2013년 3월 21일	첫 이혼 재판
2013년 5월 4일	피해자故 김영희(가명)씨 사망 사건 발생
2013년 5월 7일	사건 기사화
2013년 5월 28일	공소장 접수
2013년 6월 5일	고양지원과 가정폭력 관련시설 간담회
2013년 6월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이별살인> 편에서 사건 방영
2013년 6월 17일	살인사건 첫 공판
2013년 8월 12일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목사 강력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시작
2013년 8월 27일	서명 마감
2013년 8월 29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의견서 및 서명 제출
2013년 7월 5일 ~ 9월 27일	총 4회 공판
2013년 10월 28일	변론 종결(검사 20년 구형)
2013년 11월 15일	징역 18년 최종 선고
2013년 11월 22일	피고인 항소

# 변화의 힘 - 연민, 살림, 지혜

글 | 최만자 (여성신학자,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올해 세계YWCA-YMCA 국제친선주간 예배는 '변화가 되라' (Be the Change)는 주제로 전 세계가 로마서 12장 2절과 함께 '변화'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한다. 세계YWCA-YMCA가 기도를 요청하며 문제의식으로 삼은 것은 소비문화, 물질화로 심각한 빈부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과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들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중심적 삶을 따르고 생명에 기초한 본질적 삶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YWCA와 YMCA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헌신적이고 예언자적 외침을 해야 한다.

최근 '레츠운동'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같은 물물 교환적, 공동체적, 사람중심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모순된 삶의 형태들을 단절시키는 힘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와 원리를 여성학자들은 여성주의 윤리-보살핌의 윤리라고 표현한다. 나는 여성학적 보살핌의 윤리를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원리들로 생각한다면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해본다.


나는 그 첫째 원리를 '연민- 사랑과 정의의 인간성 갖기'라고 생각했다. 버트란트 러셀은 '내 인생을 사로잡은 단순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렬했던 열정은 세 가지다. 사랑의 갈망, 진실의 추구,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연민이다'라고 했다. 영어에서 연민은 com과 passion의 합성어로서 '열정을 함께함' 혹은 '고난에 함께함'의 뜻으로 '불붙는 듯한 열정'으로 감정이입, 상대의 상황에 함께 하는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나누어 주라는 말에 한 여자가 '모성애가 불붙는 듯하여'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ecause compassion for her son burned within her, 공동번역-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아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사용된 단어 '모성애'가 '연민' (compassion)이라는 단어다. 히브리어로 연민의 어원은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다. 자궁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다. 아기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그리고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상태 그것이 연민이다. 그래서 연민은 정의와 맞닿아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원리는 '살림-생명중심과 연대'이다. 성서적 인간형은 '살림리스트' (Salimist)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서 무한 경쟁으로 돌입한 세상은 그 대열의 낙오자들은 비인간화시키고 남을 딛고 내가 일어서야 산다는 성공론을 확장시켜 교육과 종교에서조차 이 사상이 지배하게 되었다. 경쟁은 죽이는 문화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대상화하고 야비한 인간성으로 죽이는 경쟁문화로부터 탈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문화 안에 경쟁원리들을 세우고 있다. 예수께서는 죽임의 태도는 샅군(표준 새번역-도둑) 목자의 것이라 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살림리스트로 오셨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성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살림의 가치는 보살피는 노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노동은 나의 생존과 타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며 그래서 살림은 생명과 연대와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삶의 방식은 '지혜-공감, 공동체적인 삶'이다. 지혜는 단순한 삶의 처세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를 인간의 일상적 삶의 경험에서 찾는다. 정해진 규범과 법칙, 원칙에 의해서 진리나 정의를 규정짓는 일반적 법질서와는 달리 개인의 생활과 삶의 맥락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혜는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소통하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는 생활 속의 정의다. 지혜는 약한 자, 제도화된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힘없는 개인을 살아남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들의 의미이다.

지혜는 여성들의 삶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성서에도 지혜를 여인으로 은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혜자로 표현한다. 예수는 당시 유대사회와 종교가 부른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였다. 그것은 '소피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으로 결핍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죄인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이들을 포괄하여 안으시는 사랑으로 경험된 하나님이다. 위축된 자들, 불구자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창녀들이 모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모았다고 소개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롬12:2)는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칠 만큼' (롬12:1) 철저하게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구약의 예언자적 요청이 동시에 예수의 급진적 요구다. 예수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 내어버리라'고 하면서 옛 질서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셨다. 우리 몸을, 역사적인 현존재를 하나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내맡김'의 의미만큼 철저한 변화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를 위한 일을 중단하고 존재를 위한 생각과 실천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했다. 소유를 넘어서고 경쟁을 넘어서고 탐욕을 벗어나서 연민, 살림, 지혜의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서의 요청에 따라 이 세대의 욕망을 단절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YWCA-YMCA는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

2013. 12. 16(월) ~ 2014. 1. 29(수)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故김광석 탄생 50주년 창작 뮤지컬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故김광석의 모든 음악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시작되었고, 18곡의 가창곡, 4곡의 자작곡, 그리고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2곡의 미발표곡까지 총 24곡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이자 단 하나의 뮤지컬이다.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환상적 선율로 관객들의 가슴에서 김광석이란 그리움의 대상을 되살려 낼 것이다.



**발레 <호두까기인형>**

2013. 12. 18(수) ~ 12. 25(수)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2월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전설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함께하는 <호두까기인형>은 화려한 춤의 축제, 달콤한 음악, 환상적인 무대로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과 무대로 해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연말 최고의 가족 발레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호두까기인형>은 온 가족과 연인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뮤지컬 <카르멘>**

2013. 12. 3(화) ~ 2014. 2. 23(일) / LG아트센터

브로드웨이팀이 참여하여 소설, 오페라,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로 만나온 카르멘을 현대적 감각과 경험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카르멘의 음악들은 자유로운 멜로디와 다채로운 감성의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흔든다. 한국인의 정서와 잘맞는 서정적이고 애절한 멜로디에 집시 리듬을 더했다. 이를 통해 네 연인의 감정과 갈등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전시 <명화를 만나다-한국근현대회화 100선>**

2013. 10. 29 ~ 2014. 3. 30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명화를 만나다-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은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유화 등 회화작품 100점을 엄선하여 한국회화의 진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도전적인 실험정신에서부터 최절정기의 완숙함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의 치열한 창작의지와 열정을 담고 있으며 20세기 초 역사의 격랑 속에서 관객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 회화의 반세기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나누면서 만드는 평화

글 |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

창 26:12-33, 고전 13:13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풍부했다(창 1:26-31). 그리고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도록 명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자원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창 1:28-30)

**가뭄이 찾아온 세계 (창 26:1-2)**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서 죽을 때까지 경작하여 먹을거리를 해결하도록 하셨다(창 3:17-19). 인류는 농경생활과 유목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적은 땅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잦았다. 지금도 지구촌은 인간이 탐욕의 불을 많이 사용해서 지구온난화의 결과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 (창 26:15-25)**

가나안 사람들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팠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것은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놓은 샘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종족을 정착촌에서 추방하기 위해 우물을 메워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인류 역사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전쟁의 역사로 지금도 자원을 쟁취하기 위한 경제 전쟁이 치열하다.

**자원의 나눔을 통한 평화 만들기 (창 26:12-22)**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제한된 자원인 우물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수고롭게 판 우물을 양보하는 나눔의 정신을 통해 그들을 감동시켰다. 참된 선교는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창 26:28-33). 이삭은 거부가 되는 큰 복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친히 찾아와 화친을 맺음으로 큰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두 개의 우물을 판 이삭 (26:23-25)**

찰스 헨리는 '아프리카에는 저차원의 굶주림과 고차원의 굶주림이 있는데, 전자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고 후자는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 관한 것' 이라고 했다. 진정한 굶주림이란 정신의 빈곤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체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삭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끝없이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우물을 파는 일도 계속했다(창26:23-25).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삽니다' (마 4:4),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13).

현재 지구촌은 65억 인구가 넉넉하게 사용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은 탐욕이라는 질병에 걸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영적인 우물을 더 깊게 파서 생수를 충분히 마심으로 새 힘을 받아 절제와 경건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한국YWCA가 이 평화의 역사에 앞장서기를 기도한다.

# 연합회 소식

## 2013 성탄예배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가 12월 5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차경애 회장의 인도로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목사)가 '나누면서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성탄예배 헌금은 필리핀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땅에 평화와 생명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였다.

##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11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상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젊은지도자상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 특별상 강경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가 수상했다. 특히 이희호님은 12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행사에서 한국여성지도자상 상금 전액을 회원YWCA 복지시설에 쌀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또한 강경화님은 기지촌여성인권지

원센터인 두레방에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 P. 5~)

##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과 청년들과의 대화 모임

한국YWCA 청년들이 11월 7일 서울 YWCA 마루에서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사무총장과 대화 모임을 가졌다. 원영희 연합회 집행위원의 진행으로 굼본즈반다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여성, 평화, 탈핵을 주제로 한국YWCA 운동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YWCA 운동 비전을 공유했다.(자세한 내용 P. 24~)

## 세계YWCA-YMCA 국제친선주간 예배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11월 11일 '변화가 되라(Be the Change)'는 주제로 세계YWCA-YMCA 국제친선주간 예배가 있었다. 최만자 위원(연합회 Y아카데미팀)이 '변화의 힘: 단절 그리고 연민, 살림, 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 헌금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를 위해 애쓰는 밀양주민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연맹 자원지도자 및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Y어린이집 중견교사연수

Y어린이집 중견교사연수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있었다. Y어린이집 교사의 사명(김형 연합회 부회장), 한국Y 6대 정책 과제 및 평화운동 소개, Y다운 어린이집 교사 워크숍, 문화탐방 등을 하였으며 Y어린이집 원장, 중견교사, 연합회 실무자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 필리핀 긴급구호 모금 운동



연합회는 서울Y와 함께 11월 28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했다. 모금액은 필리핀YWCA에 전달된다.

## 2013 씽크머니 Y심화강사교육 및 경제교육진흥박람회



(사)한국경제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연합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제3회 경제교육진흥박람회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개최되었다. '경제교육, Π(파이)형 인간을 위한 랩소디'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박람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일반인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YWCA는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 운영과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1일 2013 씽크머니 Y심화강사교육이 본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씽크머니 강사들은 타 금융교육의 사례 및 새로운 경제교육 제공방식의 모델을 체험하고 이를 향후 씽크머니 강의 진행에 적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심화강사교육 참가자 10명과 연합회 실무자 2명이 참가했다.

## 2013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

씨티-파이낸셜 타임즈 금융 교육 회의(CITI-FT Financial Education Summit)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금융 역량의 발전: 혁신, 규모 및 영향(Moving Financial Capability Forward: Innovation, Scale and Impact)'라는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교육 전문가 총 23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YWCA는 연합회, 논산Y, 안산Y 금융교육 담당자 5명이 참가하여 타 국가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씽크머니 홍보 부스를 운영해 YWCA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제5차 YWCA 생명포럼

'일상의 생명감수성 살아내기'란 주제로 제5차 YWCA 생명포럼이 11월 28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 대

표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자세한 내용 P. 10~)

## 2013 YWCA 돌봄 임원 워크숍



YWCA 돌봄 임원 워크숍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버들캠핑장에서 있었다. 돌봄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 그리고 나의 역할 찾기, YWCA 직업훈련의 역사, YWCA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할 찾기, 돌봄산업의 현황과 비전, 돌봄관련 법과 나의 권리'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다. 회원Y 돌봄 임원과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동 정**  
· 최윤영 연합회 간사 (국제팀, 생명비전연구소) 사직 (2013. 11. 30)

## 북한어린이돕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11. 1 ~ 11. 30 기준)

총액	5,348,060
CMS 기부 (11월 1일~11월 30일)	국승훈, 고세영, 고은희, 광지영,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문미란, 명진숙, 박진화, 배정미, 백정미, 송록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윤숙, 이주영, 이행자, 이혜련, 임강숙, 임진영,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영한, 조은영, 조은선, 조은희, 진인식, 최수산나,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홍기자, 황정아, 황홍백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IDA Hennerdal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서초신동교회, 성광교회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신우회
회원YWCA, 부속시설	대전Y, 부산진구어린이집, 여수Y, 사천Y, 파주Y, 청주Y
교육 및 모임(기타)	미상

# 회원 YWCA 소식

## 북부

### 서울 YWCA

박서영 간사

#### 소비자 환경포럼



서울Y는 11월 19일 대강당에서 회원과 시민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 오염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의 사회로 진행했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방사능 오염과 먹을거리 안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전선경(방사능 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운영위원장), 정재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총괄실장), 주영수(한림대 의대 교수, 반핵의 사회)가 함께 했다.

#### 길 위의 평화학교 '제주도 평화기행'

서울Y는 남북 대학생 18명과 함께 '길 위의 평화학교' 평화의 섬 제주도 기행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은 지난 4개월 동안 공부했던 평화를 몸으로 배우고 한 데 어울리며 통일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인천 YWCA

이한나 간사

#### 회원대회 및 임시총회

인천Y는 창립 43주년을 기념하여 11월 23일 영화여자경영고 대강당에서 회원대회를 열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운동'을 주제로 한국YWCA 중점운동 6대 추진과제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회원들과 함께 결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대학Y 중창단과 회원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더욱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50명 회원들이 모였다.

#### 청소년 사이버인성교육

인천Y는 사이버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주의와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학Y 회원들이 초·중학교(십정초, 상인천여중, 인천남중, 강화여고)를 방문하여 사이버인성교육을 진행한다. 12월 13일은 '아름다운 사이버 문화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명동거리에서 진행한다.

### 강릉 YWCA

전정미 간사

#### '방사능 오염과 안전한 먹을거리' 특강

강릉Y는 11월 11일 이사위원 워크숍을 열고 '방사능 오염과 안전한 먹을거리' 특강을 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다. 강릉Y 이사, 위원, 여성의원, 여성단체장, 자문위원, 감시단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 실무자 연수

강릉Y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단양에서 강릉Y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2014년 사업 계획을 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동해 YWCA

김정은 간사

#### 제26회 회원대회

제26회 회원대회가 11월 23일 동해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최순옥 명예회장의 특강, 청소년어



올마당,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2부 순서인 회원한마당에서는 회원장기 자랑, 경품추첨 등을 했다. 폐회에서는 섬김, 나눔, 살림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YWCA의 정신을 다짐했다. 각급기관사회단체장, 회원, 청소년, 일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체험학습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11월 2일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내 위치한 한옥마을과 강릉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 원주 YWCA

김병남 간사

#### '여행방' 개소식

원주Y는 10월 11일 '여행방'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방) 개소식을 가졌다. '여행방'은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후원으로 진행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다. 원주Y는 '여행방'을 자원봉사자와 여성들을 위한 교육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 어린이합창단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행사



원주Y 어린이합창단 어린이와 학부모가 11월 13일 민들레 마당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행사를 가졌다. 어린이합창단은 이날 식비의 1/10씩을 후원하였다.

### 춘천 YWCA

진소정 간사

#### 춘천YWCA-YMCA 공동기도회

춘천YWCA-YMCA 공동기도회가 11월 22일 춘천YMCA회관에서 있었다. 유영호 목사의 '축복의 기도'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 경기

### 고양 YWCA

남궁혜경 국장

#### 평화의 언어- 비폭력대화

고양Y는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비폭력대화를 진행했다. 교육 종료 후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비폭력대화를 훈련하기로 했다.

#### 애들이 함께 밥먹자

고양Y는 11월 25일 광성드림학교에서 애들이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생명밥상의 소중함과 바른 먹을거리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의 한 끼를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나눔 것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 남양주 YWCA

이종은 간사

#### 환경정화 및 한강걷기 운동



남양주Y는 11월 2일 환경정화 및 한강걷기 운동을 진행하였

다. 남양주Y에서 팔당대교까지 한강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기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사, 위원, 실무자, 백합회 회원(돌보미 선생님들) 43명이 참가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SKC와 함께하는 독거노인주거개선사업 진행**  
수원Y는 지난 10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SKC 지정기탁금으로 독거 어르신 주거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6일부터 총 9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어르신 택에 동절기 대비 도배와 장판, 전기, 단열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수원Y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이사,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안산Y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이사 및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특강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방사능식품안전과 에너지 문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 및 실무자 43명이 참여했다.

**성평등문화제 수기공모전 시상식**  
안산Y는 2013년 성평등문화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수기공모전을 진행하고 11월 21일 메가박스 안산점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경험담을 다루었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안양Y는 2013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11월 8일 수원 YWCA 회관 강당에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2개 지역YWCA 사무총장 및 실무자,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약 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다짐하였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다문화 가족 멘토-멘티 한마당**

의정부Y는 11월 4일 다문화 가족 멘토-멘티 한마당이 열렸다.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다문화 가족들이 편지낭독, 레크리에이션 등의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가족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자국민 멘토가 멘티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부**

**대전YWCA** 김지찬 간사

**독도알리기 공연과 청소년문화축제**  
대전YWCA Y-틴 회원들이 자체 기획하고 진행한 '독도알리기 공연'과 '청소년문화축제'가 11월 7일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열렸다. 약 100명 정도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독도 플래시몹, 독도에 대해 말해봐, 독도게임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댄스, 노래, 밴드 공연, 영화상영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제천YWCA** 이경희 부장

**제4회 맑은 물을 위한 걷기 행사**  
제천Y는 10월 26일 제4회 맑은 물을 위한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제천 시민과 청소년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6km 이상 걷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제천의 물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물을 마시지 않고 걸어가면서 물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50주년 기념사업 선정을 위한 노인운동 2차 워크숍**



청주Y는 10월 22일 50주년 기념사업 선정을 위한 노인운동 2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명진숙 국장(한국YWCA연합회)의

'여성노인운동과 YWCA' 라는 주제의 특강 이후 '노인'이라는 키워드로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Y 이사, 위원, 실무자,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길 위의 평화학교-생명평화기행**

한반도의 평화를 찾기 위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18명의 남한, 북한(탈북) 여성들이 제주도로 생명평화기행을 다녀왔다. 4.3평화기념관, 강정마을 등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며 평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이사·위원, 실무자 정책 워크숍**  
충주Y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정책워크숍을 했다. 2013년도 사업 평가, 2014년도 충주Y 중점운동 공유 시간을 가졌다. 충주Y는 탈핵과 평화통일을 중점운동으로 정하고 부속시설과 연대하여 함께 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사랑나눔 바자회**



충주Y는 10월 30일 충주지역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바른 먹을거리를 나누기 위한 바자회로 친환경 농산물과 질 좋은 물품을 판매하였다. 매년 1회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 지역에 바른 먹을거리를 확산시키는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사무총장이·취임식**  
천안Y 사무총장이·취임식이 10월 30일에 있었다. 서선하 전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와 김명숙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



하는 자리였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2014 회원증모 30일 운동 발대식**  
광주Y는 11월 8일 '2014 회원증모 30일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회원운동체인 YWCA의 근간을 마련하고 YWCA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로 이천진 목사(공정교회 담임)의 '목적과 회원증모운동'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광주Y는 12월 9일까지 회원 5,700명 이상, 회비 2억 7천만 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제2차 이사·위원 연수회**

광주Y는 11월 20일 제2차 이사·위원 연수를 가졌다. 찬양을 통한 영성훈련(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전도사)과 'Y지도자, 나는 어떤 지도력인가?' 라는 주제 강의(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 2014 한국Y 6대 추진과제 이해와 광주Y 운동모색(광주Y 김신희 사무총장)을 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하여 자원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점검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애들이 밥먹자**  
남원Y는 3회에 걸쳐 '애들이 밥먹자' 행사를 진행했다. 1회는 Y-틴을 대상으로 쌀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하고, 떡케익 만들어 보았다. 2회는 '남원YWCA와 함께하는 안전한 먹거리 교육'을 남원시민과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3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쌀강정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이번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남원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쌀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원Y 직원연수**

남원Y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북 진안으로 직원연수를 다녀왔다. '침과 역량강화' 라는 주제로 2014년 정책회의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익산YWCA**

**정아영 간사**

**창립 11주년 기념식**

익산Y는 10월 31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당회장)의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 차경애 회장(한국YWCA연합회)의 격려사, 임성민 목사(익산기독교연합회장), 이한수 익산시장과 김대오 익산시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시의원 10여명, 각 기관장, 교계관계자, 이주여성,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Y는 취약계층과 여성들을 위해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광양YWCA**

**추효인 간사**

**광양YWCA-YMCA 연합예배**



광양YWCA-YMCA 연합예배가 11월 12일 광양Y에서 있었다. 'Be the change! - 변화의 주제로!' 라는 주제로 광양Y 회장 및 광양YMCA 이사진을 비롯해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열린음악회**



목포Y 합창단은 11월 21일 복음교회에서 열린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전 지휘자였던 바리톤 김철웅 교수, 소프라노 이찬순 교수와 복음교회 사마임남성중창단, 남부교회 생명나무찬양팀이 특별출연했고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도 진행했다. 목포Y 합창단은 1968년 창단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지역음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목포Y는 11월 20일 '식품방사능 오염도표시 및 방사능 기준치 하향조정을 위한 촉구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을 통해 목포시민들에게 정책제안 서명을 받고, 방사능 오염식품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YWCA-YMCA 공동기도회**

목포Y는 11월 15일 목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목포YWCA-YMCA 공동기도회를 진행했다. 조현용 목사(빛과 소금교회)의 '골방에 들어가 숨으라'는 말씀과 친교시간을 갖고 사랑의 집 요양원에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총 65명이 참석했다.

**순천YWCA**

**김사라 간사**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단**

순천Y는 11월 21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행·의정 모니터단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모니터단은 지난달 말부터



'행·의정 모니터 시민기자단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순천시의회의 각 집행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 했다.

**여수YWCA**

**김주란 간사**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여수Y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12명의 신입직원교육을 진행했다. YWCA목적문 이해와 정체성, 중점운동, 역사, 규정의 이해 및 헌장의 구조, 지역이슈운동의 다채로운 강의가 있었다. 또한 여수Y 부속기관도 탐방했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2014 민들레회원증모현황판 제막식 및 Y줌마장터**



제주Y는 11월 8일 '2014민들레회원증모현황판 제막식 및 Y줌마장터'를 진행했다. 1부는 이사, 실무자,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개회예배, 회원증모개화선언, 회원증모현황판 제막식을 했고 2부로 Y줌마장터를 열었다. 장터에서 300여 명의 회원들과 풍성한 생명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제주Y는 10월 22일 제주동중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생활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주먹밥과 음료를 전달하고 저소득 증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쌀(100kg) 전달식도 진행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성인지적 예산 수립을 위한 세미나**

서귀포Y는 11월 22일 성인지적 예산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이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영태(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정유선(원주여민회) 대표가 발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날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대구백화점과 함께하는 바자회**



대구Y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백프라자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최정숙 회장의 인사말과 커팅식으로 바자회를 시작

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저개발국가 여성지도력지원과 북한어린이돕기, 대구Y 착한치과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부산YWCA 박지영 간사**  
생명사랑 음악회



부산Y 생명사랑 음악회가 11월 1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라메르오케스트라, 성악가, 부산YWCA문화예술단(옛소리, 합창단,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있었고 가수 해바라기가 출연했다. 생명사랑을 실천해온 부산Y를 회원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문화 활동으로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부산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공동예배**  
부산YWCA-YMCA 공동예배가 11월 19일 부산Y 강당에서 있었다. 식탁 교제와 공동예배, 황홍렬 교수(부산장신대 선교학과)의 주제강연,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부산YWCA-YMCA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한사랑 환경음악회



울산Y는 11월 29일 현대백화점 토파즈홀에서 한사랑환경음악회를 열었다.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을 해 온 울산

Y가 캠페인에 참여한 울산 시민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T.I.F(Toon In Free) 오케스트라 이효상 지휘자 연주회를 이끌었다. 울산Y는 울산광역시와 매월 22일을 버스·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여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결혼이민여성 자국요리 경연대회



포항Y는 11월 13일 포항Y 조리실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결혼이민여성 자국요리 경연대회'를 열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통해 한국과 이민국간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의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베트남 출신 흰김당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사랑나눔 김장나누기**  
포항Y는 11월 14일 포항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사랑나눔 김장나누기'를 진행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와 롯데백화점 직원들과 함께 천여 포기 김장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친정부 초청행사

거제Y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다문화 열다섯 가정을 선정하여 친정부모를 초청행사를 가졌다. 환영식에서 한국전통무용, 베트남, 캄보디아 전통춤과 전통가요 등을 선보였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행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가 부모의 소원인 가족관계 회복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7,600

만원을 후원했다.

**제13회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가 11월 9일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 ALLEMANDE 외 특별출연 배민수(트럼펫)연주 및 OPEN UP(댄스팀)과 거제 POP'S 오케스트라 협연 등 11곡을 연주했다.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이다. 연주회 후원금 전액은 지역아동센터 돕기에 사용된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개소 9주년 기념행사  
마산Y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개소 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1월 26일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9주년 기념행사로 서성동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관기관과 시민들을 초청하여 2013년 활동을 보고하고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여론을 모았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유해환경 캠페인 및 설문조사



사천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1월 20일 용남중·고등학교에서 'With 청소년, No 유해환경'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유해환경 및 유해약물(주류, 담배)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와 음주·흡연금지 내용이 적힌 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어린이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중국에 가다'



양산Y 어린이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소주에서 열렸다. 양산Y 어린이합창단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해외연주회에서 어린이들은 '한·중 문화교류'에 가고 역할을 했다. 중국 소주시금강구실협소학교 천래합창단, 구운민악단, 비양무용단 등 100여 명이 협연을 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일일차집  
진주Y는 10월 31일 진주제일예식장에서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한하늘 한땅 다문화 가정지원 일일차집'을 열었다. 재능기부로 작은 음악회(다문화 중창단, 악기 연주자, 성악)가 열려 차집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날의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창원YWCA 박소라 간사**  
사랑의 김장 나눔

창원Y는 12월 3일 한마음병원의 후원으로 마산·창원·진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마산·창원·진해Y가 연합하여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김장은 취약계층 220가정에 돌아간다.

# 2013 월간『한국YWCA』목차 색인

제목 | 필자 | 월 | 쪽

● 이달의 생각		
생명 운동 - '살림' 의사회	차경애	1+2 / 04
응답하라, YWCA	유성희	3 / 04
우리는 주님의 기쁨일까?	최형선	4 / 04
아름다운 유산 YWCA생명운동	유도희	5 / 04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함희경	6 / 04
'최소한의 삶' 을 바라며	한영수	7+8 / 04
젊은이여, Y를 토대로 발돋움하라!	김은경	9 / 04
우리들의 한국YWCA에 여성을 위한 희망이 있다	원영희	10 / 04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전력 대란 문제	백해진	11 / 04
원수를 사랑하라	한미미	12 / 04

● 이달의 인물		
박에스터, 여성·빈민 두루 꺼안은 Y의 영원한 멘토	이주영	1+2 / 05
한국YWCA의 산파, 김필레	편집실	3 / 05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아라 선생님	김기동	5 / 05
열정의 지도력 최이권 선생	차귀숙	7+8 / 05
한평생 교사와 소외된 여성을 돌보다 양한나 선생	하선규	9 / 05
전주YWCA 방애인 선생	김은진	10 / 31
홍인숙 뉴욕 퀸즈Y 고문총무	편집실	11 / 05
여성·아동을 품고 세계로 나랏자이 굼본즈반다 세계YWCA 사무총장		12 / 20

● 월례아침기도회		
생명을 회복할 시간, 아직 있습니다	최이우	1+2 / 29
당신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최이우	3 / 29
'생명의 예수' 가 있는 사람	최이우	4 / 05
잡 놀라운 세상	김기석	5 / 29
예수의 마음을 배우다	김기석	6 / 05
자족을 배우라	김기석	7+8 / 31
생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장 상	10 / 05
다시 프루테스트 - 10월의 프루테스탄트	이정배	11 / 32
나누면서 만드는 평화	손인웅	12 / 33

● 이달의 현장 ①		
2013 Y-틴 전국협의회	고은희	1+2 / 06
YWCA연합회 정기총회	편집실	3 / 06
제1차 전국 사무총장 협의회		4 / 06
제17회YWCA가뽀은좋은TV 프로그램상	편집실	5 / 12
한국YWCA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편집실	6 / 06
한국YWCA 여성인력개발센터20주년	편집실	7+8 / 06
길 위의 평화학교: 한국Y·퀸즈Y·연변 여성들이 함께하는 백두산 평화기행외	최수선나	9 / 06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편집실	10 / 06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편집실	11 / 06
YWCA 제1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편집실	12 / 05

● 이달의 현장 ②		
회원Y 정기총회 신임회장 선출	편집실	1+2 / 20
2013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운동 관련시설장 협의회	편집실	3 / 18
2013 회원증모워크숍	윤수정	4 / 20

대구YWCA창립90주년	대구YWCA	5 / 14
한국YWCA인터넷방송국5기 아나운서 방송을 마치며	편집실	6 / 08
한국YWCA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	편집실	7+8 / 08
모금은 친구 만드는 재미	윤수정	7+8 / 10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홍다운 외	9 / 10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하용 기준치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	광주, 안양, 하남Y, 연합회	10 / 08
제4차YWCA 생명포럼	편집실	10 / 10
제15회 청주여성영화제	김태순	11 / 1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토론회	박동순	12 / 08

● 현장의 소리를 찾아		
2013년도 신입사무총장 연수	편집실	1+2 / 18
청년·대학Y 활동 모임	조은선	3 / 20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YWCA어린이집	편집실	5 / 16
인양Y 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의 티당성 검토를 위한 설명회	박동순	6 / 10
YWCA 어린이집 정책워크숍	정경미	11 / 14
YWBS 6기 방송을 마치며	6기 아나운서	12 / 26

● 생명 씨앗		
원자력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 전환으로	유미호	1+2 / 08
에너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이유진	3 / 08
2013 제1차 YWCA 생명포럼 스케치	김기동	4 / 10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편집실	4 / 08
한국YWCA정책교육 - 카타오카 테루미 씨 초청 강연회	편집실	5 / 18
제2차 YWCA 생명포럼	편집실	6 / 12
제3차 YWCA 생명포럼	편집실	7+8 / 12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비상	오진아, 연합회	9 / 16
지역순환사회를 생각한다	차홍도	10 / 12
제5차 YWCA 생명포럼	편집실	12 / 10

● 생명 이야기		
돌봄으로 지키는 생명 - '무연사회' 를 살아가며	이윤숙	1+2 / 10
풍요로움에 대해 다시 묻는다	이윤숙	3 / 10
함께 사는 게 생명이다	이윤숙	4 / 12
고통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윤숙	5 / 20
765kv 송전탑으로 교통과 눈물을 보내신 안된다	이윤숙	6 / 14
내 몸은 누구인가!	이윤숙	7+8 / 14
느리게, 쉬어가며, 행복하게	이윤숙	9 / 18
'우월한 생명' 이란 무엇인가	이윤숙	10 / 14
먹거리는 생명이다	이윤숙	11 / 16
내 몸을 살피고 돌보는 이 그 누구인가?	이윤숙	12 / 12

● 평화의 여정		
유엔 안보리 결의1325호	최수선나	1+2 / 12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	정옥식	3 / 12
핵 전쟁위기 극복하려면 평화협정 다시 맺어야	노정선	4 / 14
가정의 달, 북한어린이와 함께 해요	최수선나	5 / 08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화해가 넘치기를	캐서린 재퍼츠 소리	6 / 16

한반도 평화체제를 세워야 - 정전60주년을 맞으며	한완상	7+8 / 16
'길 위의 평화학교'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다	최장현	9 / 20
시리아 내전이 평범한 한 가족에게 남긴 것	김영미	10 / 16
문화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트길	강동안	11 / 20
고통을 치유하고 관계를 세워가다	배영자	12 / 14

● 감동이 있는 나눔		
사랑에 빛진 마음 북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송록희	1+2 / 39
'서로 함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방원철	7+8 / 18
저금통 들고 찾아온 효은 - 건로 남매 이야기	박자희	9 / 22
저금통 동전 모아서 북한 친구를 돕고 싶어요	청주YWCA	10 / 18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콩 한쪽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홍성 행복학교회	11 / 22
필리핀을 향해 쓰아올린 희망의 공	서울봉천복지관 다문화이해활동가 '다올'	12 / 16

● YWCA PR기지사단		
청주YWCA 길 위의 평화학교	이슬이	10 / 18
평화감수성UP	김명숙	11 / 23
PR기지사단 1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장현, 서민지	12 / 17

● 돌봄협동조합		
그리스도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봐?	배정미	1+2 / 14
협동조합 시대, YWCA의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	배정미	3 / 14
"한 송이 들꽃은 혼자서 피지 않습니다"	배정미	4 / 16
사랑을 나눠 행복을 배로 키우는 돌봄공동체YWCA에 있습니다	배정미	5 / 10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 조합원 스스로 고민하며 푼다	안정희	6 / 18
보육도 사회 전체가 맡아야	박영미	7+8 / 20
한국기독교와 협동조합운동	한경호	9 / 24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할 때	배정미	10 / 20
2013 YWCA 직업훈련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김해경	11 / 24
협동조합기본법 1년, 신규 협동조합들의 현황과 과제	최영미	12 / 18

● 오늘의 여성		
세계YWCA, 여성폭력 추방 위해 일어서다	원영희	1+2 / 16
여성 폭력 추방과 예방, 이전 합의된 결론을 이행할 때	편집실	3 / 16
이제는 말해야 한다 - 아동 성폭력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구미정	4 / 18
우리나라 모성보호 정책의 추이와 법안	홍승아	5 / 06
우리,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미래HER FUTURE	최윤영	6 /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단체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이은아	7+8 / 22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꾸는 '나비의 꿈'	윤미향	9 / 13
가정폭력과 여성의 안전	이은숙	10 / 22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YWCA 정책 제안서	세계YWCA	11 / 10
성폭력은 여성폭력의 일부, 여성에 대한 차별 없어야	명진숙	12 / 22

● 키다리		
공감능력과 협동력 지닌 실천하는 리더가 Y다운 리더	편집실	1+2 / 24
2013년 키다리에 바란다	편집실	3 / 24
2013 키다리 입학식	김은경	4 / 24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	백해진 외	5 / 24
세상을 향한 희망의 날개짓 YWCA키다리	오수현 외	6 / 24
YWCA 동아시아 젊은 여성 평화포럼	평화포럼 참가자	7+8 / 26

Y-틴 지역별 회원대회	김동구 외	9 / 28
학교공간바꾸기에 이어 꿈의 스토리를 열다	김수연	10 / 26
YWCA 청소년 활동가 워크숍	조은선	11 / 26
세계YWCA 사무총장과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	조영미	12 / 24

● YWCA와 사회		
함께 하는 다문화	국민일보 기사 모음	1+2 / 22
YWCA 학교 2013	국민일보 2월 기사모음	3 / 22
'생명에 생기를'	국민일보 3월 기사모음	4 / 22
생명에 생기를 - 생생한 이야기	국민일보 4월 기사모음	5 / 22
다양한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국민일보 5월 기사모음	6 / 22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세상	국민일보 6월 기사모음	7+8 / 24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국민일보 7+8월 기사 모음	9 / 26
YWCA 생명·돌봄	국민일보 9월 기사 모음	10 / 24
YWCA가 만들어가는 문화	국민일보 10월 기사 모음	11 / 28

●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고난의 땅 팔레스타인, 한국 그리스도인들 관심 가져야	이윤희	1+2 / 26
하나님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를	최만자	3 / 26
생명파괴의 뿌리 찾는 근원적 운동	최만자	4 / 26
평화 건설이 곧 사회정의 실현	최만자	5 / 26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정의운동	최만자	6 / 26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신 선	7+8 / 28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여성	배현주	9 / 30
정의·평화의 길 위의 청년 순례자	설윤석	10 / 28
한국YWCA와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이천진	11 / 08
변화의 힘 - 연민, 살림, 지혜	최만자	12 / 30

● YWCA 성명서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YWCA 입장		3월 / 28
제15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탈핵과 에너지 정의' 를 위한 공동성명서		9월 / 12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들에게 사죄하라!		9월 / 15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10월 / 30
765kv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11월 / 18

● 문화가 산책		
신간소개 <콘서트 교야> 외	편집실	1+2 / 29
오페라 아이다	이영진	4 / 28
서울환경영화제	편집실	5 / 28
신간소개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외	편집실	6 / 28
신간소개 <낮은 땅의 어머니> 외	편집실	7+8 / 30
함께 읽고 싶은 책 <레프트 비하인드> 외	편집실	9 / 43
함께 읽고 싶은 책 <최인호의 인생> 외	편집실	10 / 43
신간소개 <플랫 b> 외	편집실	11 / 43
불만한 공연·전시 <다셈바> 외	편집실	12 / 32

● 기타		
고(故) 문태임 선생님 1주기		4월 / 29
고(故) 박영순 선생님 추모		6월 / 29
세계YWCA-YMCA 공동기도주간 _ 변화가 되려(Be the Change)		11월 / 30

# 월간『한국YWCA』 CMS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월간(한국YWCA)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CMS신청 기간연장 문의 02)774-9702

강교자	김완희	배영자	신희운	이은영	전희순	최영선
강인순	김용자	백수경	윤혜원	이일선	정유진	최은식
고영의	김용자	백영옥	이경순	이재경	정진자	최효숙
고의순	김효선	성지희	이남복	이종경	정희영	축령복음병원(신희운)
김기동	문금선	송현숙	이수련	이종선	지순경	한미미
김명희	방해자	신미옥	이영순	이천진목사님	차경애	한영수
김신숙	방현주	신홍근	이영옥	장옥순	최미숙	한진이

## 출판감사인사

한국YWCA에 책을 보내주신 출판사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책은 <신간소개>란에 소개하고 있으며, YWCA활동가들의 지적양분이 되고있습니다.

가) 가교출판 | 가나출판사(기원원) | 강같은 평화 | 개암나무 | 거인 | 경진 | 계간(아시아) | 계림 | 고래실 | 고래이야기 | 고슴도치 | 공공문화개발센터URART | 교문사 | 교보문고 | 교양인 | 굿인포메이션 | 그루북스 | 그르메 | 그린북(황금가지) | 글고은 | 글담출판사.인디고 | 글로세움 | 글썬산책 | 기획출판 거름 | 김&정 출판 컨설팅 | 김영사 | 꿈을이루는사람들 | 나눔의 집(함께읽는책) | 나무생각 | 나무숲 | 난장이 | 낮은산 | 내인생의 책 | 네모북스 | 넥서스 주니어 | 노란돼지 | 노마드북스 | 노비(성림, 지식더미) | 녹색평론 | 누보 | 눈과마음 | 뉴스앤조이 | 느린걸음 | 늘푸른 소나무 | 니 | 니키앤프렌 | 다다북스 | 다른세상 | 다른우리 | 다림 | 다만북스 | 다산북스 | 달리 | 달팽이출판 | 당대 | 대교비텔스만 | 대대북 | 대한기독교서회 | 더난출판 | 더북컴퍼니 | 더숲 | 도깨비 | 돌베개 | 동녘 | 동문선 | 동산사 | 동아시아 | 동연 | 동학사 | 두드림 | 두란노 | 두리미디어 | 들녘(느림보) | 디자인하우스 | 따님 | 따비 | 땅에쓰신글씨 | 또 하나의 문화 | 뜨인돌 | 뜨인돌어린이 | 라이온북스 | 라이프플러스인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 랜덤하우스코리아 | 로렘(럭스미디어) | 루멘스 | 룩스미아 | 리더북스 | 리더스하우스 | 리베르 | 리수 | 리스컴(중이책) | 리얼북 | 리즘 | 마더북스 | 마음의숲 | 마인드북스 | 말글빛냄 | 메이데이 | 멘토press | 멘토출판사(노란우산) | 멜론 | 모야북스 | 몬스터플래닛 | 문공사 | 문원 | 문학동네 | 문학동네 | 문학동네(달)(알마) | 문학세계사 | 문학에디션 뽕 | 문학의 문화 | 문화미래 이프 | 물푸레 | 뮤직마운트 | 미디어미래연구소 | 미디어월 | 미래문화사 | 미래엔컬처그룹(아이세움) | 미래와경영 | 미래의창 | 미술 문화 | 민들레 | 민음사 출판그룹 | 민음인(황금가지, 판미동) | 밀리언 하우스 | 바다출판사 | 바람의 아이들 | 바람출판사 | 바보새 | 바오밥 | 바우하우스 | 바움 | 바이북스 | 반디(백간교육) | 베스트프렌드 | 베이비북스 | 보보스(작은씨앗) | 봄날 | 부.키 | 부글 | 부표 | 북마크 | 북멘토 | 북북서 | 북센스 | 북스넷 | 북스토리 | 북코프 | 북클릭 | 북폴리오 | 북하우스 |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분도출판사 | 뷰스 | 브니엘 | 브라가서비스 | 브레인월드(한문화) | 블루미디어 | 비아북 | 비전과리더십 | 비전북 | 비즈니스북스 | 비즈앤비즈 | 비즈니스맵(한국물가정보회사) | 비체 | 비타브레인 | 뿌리깊은나무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 사파리 | 사피엔스21 | 산촌출판사 | 산책자 | 산하 | 살림 | 살림터 | 삼성출판사 | 삼인 | 삼천리 | 상수리나무 출판사(맥스미디어) | 새만화책 | 생각과꿈 | 생각비행 | 생각의나무 | 생각창고 | 산티 | 서광사 | 서돌 | 서해문집 | 섬씽북 | 섬아이 | 성안당(새앙뽕) | 성하출판 | 세계사작가세계 | 세마치 | 세움출판 | 세종서적 | 세창출판사 | 소금나무 | 소나무 | 소소리 | 소오당 | 소울메이트(원앤원북스) | 소피아 | 솔라피데출판사 | 솔로몬북 | 솔출판사 | 순정아이북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토리하우스 | 승산 | 시공사 | 시공주니어 | 시금치 | 시금치 | 시냇가에 심은나무 | 시대의 창 | 신 진리탐구 | 실천문학 | 생 앤 파커스 | 씨네21 |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씽크뱅크 | 씽크스마트 | 아고라 | 아라크네 | 아롬미디어 | 아르고스 | 아르케 | 아름다운사회 | 아모르문디 | 아우라 | 아이네오 | 아이웰콘텐츠 | 아이프렌드 | 아지북스 | 아침기획 | 아침이슬 | 야카넷 | 아트하우스 | 애니북스 | 애플미디어 | 애플북스 | 애플비 | 야스미디어 | 양철북 | 어드북스 | 어린이리 | 어린이리 | 어린이책이야기 | 어바웃어북 | 언어세상 | 에듀웰 | 에버리치출딩스 | 이지21 | 예코리브르 | 예코의 서재 | 엘빅미디어 | 여름숲 | 여백미디어(꼬마쉘터) | 여성중앙 | 여우별 | 여우오줌 | 여우와두루미 | 여유당 | 여이연 | 역사비평사 | 열대림 | 열림책들 | 열림원 | 열음사 | 영교출판 바우술 | 예담 | 예림당 | 예문 | 오토북스 | 오피니티 | 울 | 울리브나무 | 웅기장이 | 와우북스(와우라이프) | 와이미디어 | 와이즈아이 | 우주사 | 웅진출판(시작) | 원민출판사 | 월간 가이드포스트 | 월간 싱클레어 | 웰북 | 웰스프링 | 위즈엄하우스 | 유림문화사 | 은행나무 | 이너북 | 이레미디어(담푸스) | 이마고 | 이미지박스 | 이상미디어 | 이숲 | 이아소 | 이유 | 이지북(자음과모음) | 이지출판 | 인물과사상 | 일송미디어 | 일송북 | 일월서각(북비, 황금고래) | 일출봉 | 자유로운 상상 | 작은나무가주는 희망 | 작은책 | 작은책방 | 장서가 | 장수하늘소 | 재미마주 | 전나무숲 | 정은문고 | 제우스 | 젠북 | 조이웍스 | 종합출판 | 좋은교사 | 좋은책만들기 | (주)가나출판사(기원원) | (주)가이더스 | 주간코믹 팬티 | (주)탄교육 | (주)길벗어린이 | (주)길벗어린이 | (주)더큰컴퍼니 | (주)도서출판 길벗 | (주)도서출판 보리 | (주)도서출판 삼인 | (주)두레스 경영연구소 | (주)매경출판 | (주)명진출판 | (주)문학과학사 | (주)미래M&B | (주)베이스캠프 | (주)북21 을파소 | (주)북지사 | 동쪽나라 | (주)브레인 | (주)비전비엔피(이텐슬리브) | (주)비전엔피, 비전코리아 | (주)비전하우스 | (주)세계출판사 | (주)서울문화사 | (주)성서원 | (주)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 (주)스타북스 | (주)신원문화사 | (주)안그라픽스 | (주)스오디커뮤니케이션 | (책그릇, 어부의 그물) | (주)영어정복자 | (주)중앙출판사 | (주)창비 | (주)크레듀 | (주)타라티피에스 안티쿠스 | (주)파라북스 | (주)한겨레출판 | (주)한글교육 | (주)한즈미디어 | 중앙books | 지상사 | 지식노마드 | 지식여행 | 지식의 샘 | 지앙어린이(키드북) | 지혜의 눈 | 지훈출판사 | 진영출판사 | 차) 차근경제연구소 | 창작마루 결 | 채우리 | 책과함께 | 책보세 | 책씨 | 천권의 책 | 천둥거인 | 청개구리 | 청년사 | 청년의사 | 청림출판(추수밭) | 청솔 | 청아출판사 | 청어람 | 청어람주니어 | 청포도 | 초록개구리 | 추수밭 | 쿠오레 | 쿠포북 | 쿨란출판사 | 큰나무 | 클리어마인드 | 타고북스 | 토네이도 | 통나무출판사 | 파란자전거 | 파란하늘 | 파란하늘 | 파랑새 | 파피에 | 판테온하우스 | 팜파스 | 퍼플레인 | 페이퍼로드 | 평단문화사 | 평사리 | 평화나무 | 포이애마 | 풀라리스 | 풀라북스 | 푸른길 | 푸른나무 | 푸른숲 | 푸른역사 | 풀빛 | 프렌즈 | 프리월 | 플래닛 미디어 | 플러스에감 | 하늘고래 | 하늘아래 | 학교재 | 학교재 | 학민사 | 한국경제신문 환경BP | 한국문화사 맵스터 | 한솔수북 | 한스컨텐츠 | 한울림 | 해남출판사 | 해누리 | 해솔 | 해와나무 | 행복우물 | 행복한 나무 | 행복한 나무 | 행복한 책읽기 | 헤라 | 현대문학 | 현문미디어(생각하는책성) | 현암사 | 호미 | 호이테북스 | 홍림 | 홍성사 | 홍시 | 흥진P&M | 환경과생명 | 현대웍스 | 황금물고기 | 황금부엉이 | 황소걸음 | 휴머니티스 | 휴머니스트 | 흐름출판 | CUP | Notebook | AATNB | BOOK 21 | E\*PUBLIC | for book | good Book | ISLD출판사(솔라피데) | JNC커뮤니티 | MBC프로덕션 | media 2.0

# 내 인생의 플러스+ 승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만남,  
알찬 혜택과 강한 콘텐츠의 승실사이버대학교에서  
당신의 미래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입학특전  
YWCA 회원 및 임직원  
장학혜택

201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차) 12.2~1.3 (2차) 1.15~2.17

■ 입학상담: ☎ 02-828-5501 ☞ http://go.kcu.ac ☠ ipsi@mail.kcu.ac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9 승실대 학교 미래관 B103호 승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예술학과 / 실용영어학과 / 중국영어문화학과 / 평생교육학과 / 상담심리학과 / 아동학과 / 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 / 법학과 / 경영학과 / 부동심학과 / 새우회계학과 / 엔터비즈니스학과 / 디지털디자인학과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융합정보보안학과 / 소방방재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